

광양건설업체들 “서희건설 해도 너무한다”

저가 하도급·산재처리 떠넘기기에 “고사 위기” 불만 폭주 서희건설 “임금 미지급·산재처리 지연 등 재발 방지 철저”

광양지역 건설업체들이 국내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7일 광양지역 하도급 건설업체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포스코 계열사에서 계약한 공사를 지역 업체와 다시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금액의 5~10%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게 상례라는 것이다.

특히 공사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때마다 서희건설은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연려해 산재처리를 지역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기 일쑤여서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일부 산재처리 지연과 임금 미지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로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양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에 본사를 둔 서희건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자체 공사할 수 있는데도 수주를 받은 뒤 중간 수수료만 챙기고 지역업

체에 저가 하도급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모순투성이 관례부터 개선해야 지역 업체가 회생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또 “서희건설이 포스코 계열사 발주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도 꺼리는가 하면 피해자 가족과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돼 가족들이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결국 지역 하도급업체에 민원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은 실적 쌓기와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 서희건설이 주는 저가 하도급이라도 받아 연명하고 있지만 향후 계약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의 경영상황은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서희건설은 포스코건설과 정산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역업체의 관심도 높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희건설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서울 양재동 오피스빌딩 건설 이익 정산금 80억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재동 오피스빌딩은 포스코건설과 서희건설이 공동으로 시행과 시공을 맡은 건물이며 포스코건설이 60%, 서희건설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양재동 오피스빌딩 사업을 포스코건설에 넘기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정산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이익 정산금과 서희가 예상한 금액 차이가 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찾겠다고 나섰다.

한편 서희건설은 지난 1994년부터 포항 제철소, 광양제철소의 토건 정비공사를 맡으면서 국내 30대 중견건설사로 급속히 성장한 회사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함평 유기농 아로니아 맛보세요
달하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들녘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아로니아’(Aronia) 수확이 한창이다. ‘베리의 제왕’이라 불리는 아로니아는 블루베리의 4배, 복분자의 20배에 달하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 제공>

강인규 나주시장 에너지밸리 조기 추진 건의 한전·농어촌공사 대표 면담

나주시가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기관별 핵심사업 육성과 신사업에 ‘로컬 푸드’ 코너 설치 등을 요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 농어촌공사를 각각 방문, 기관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이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에너지 밸리 구축사업 조기 추진과 신사업에 ‘로컬 푸드’(Local Food) 코너설치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조환의 한전 사장에게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밸리’ 조성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에너지 메카’로 발전시켜 줄 것과 구내식당이나 직원들이 나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 푸드’ 코너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전북 소식

군산시 도시숲 조성으로 재해 방지

월명공원 인근 훼손된 3.38ha

내년까지 30억투입 산책길 등

군산시는 월명공원 자락에 위치한 신흥동 일대를 도시 숲으로 조성한다. 군산시는 이달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간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단절된 월명공원 자락을 되살려 재해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회복할 계획이다.

시는 월명공원과 인접한 신흥동 자연재해위험 지구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한 후 내대지 상태로 방치된 토지 3.38ha를 숲으로 조성한 후에 시민들 품에 되돌려 줄 예정이다.

시는 노후된 사면부의 훼손된 산림지형을 복구함은 물론 사계절 꽃과 낙엽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과 자생화 등 총 8만 5000여 본을 식재해 월명공원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자연친화적인 도시 숲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 숲에는 삼림욕장과 생태놀이터, 산책길 등이 들어선다.

군산시는 사업이 끝나면 월명공원내 조각공원, 근대역사 문화거리와 연계한 관광벨트 형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보훈단체 보금자리 생겼다

내장상동 보훈회관 이달 완공
재향군인회 등 9개 단체 입주

정읍시 보훈회관이 이달 말 완공된다. 정읍시는 내장상동에 위치한 옛 재향군인회관 자리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기존 보훈회관은 노후화되고 협소해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회원들의 이용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 정읍시 11개 보훈단체 가운데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만 총무공원내 보훈회관을 사무실

로 사용해왔고, 다른 단체는 향군회관이나 각기 다른 정소를 사무실로 이용해왔다.

신축되는 보훈회관은 연건평 약 700㎡ 3층 규모로,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를 제외한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정읍시 11개 보훈단체장은 최근 정읍시 보훈회관 개관을 앞두고 간담회를 갖고 향후 보훈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새로운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순창군-경남 창녕군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행사
순창군 의용소방대(대장 장원서)와 경남 창녕군 의용소방대(대장 박판국)는 최근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상호 우호를 다지는 교류 행사를 가졌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내년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시기 가을로 변경

9월17일~10월31일 45일간

폭염·국지성 호우 등 기상 고려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변경됐다.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당초 6월 27일~8월 15일

여름 동안 50일 열려던 것을 가을인 9월 17일~10월 31일 45일간으로 시기를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박람회 개최를 1년여 남기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은 지난 6월 말 대나무축제를 개최해 노출된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다.

조직위 측은 기존 일정이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 등이 빈번한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설물 유지와 안전 관리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5월 ▲9월 상반기 ▲10월 개최안을 놓고 논의 끝에 수확여행, 단풍철 관광객 등 단체 관람객 유치가 가능하고 날씨도 좋은 9월 하

반기와 10월을 택했다.

한편, 박람회 기간 열리는 세계대나무협회(WBO) 제10차 총회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박람회 조직위는 세계 대나무협회의 사전 교감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 일정 변경에 따른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NAVER **단비플라워** 농·축·수산물

죽아화관3단 **근조화관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청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보전녹지지역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